

작은 도마뱀 - 10월호



“우리는 모두 다른 돌멩이”

What can we do?

우리가 찾은 또 하나의 커뮤니티, AURORA

WEAR THE WHITE! _10.19 END POVERTY

ALS, 그 두번째 이야기

Feeding program,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Acculturate, Enculturate!

I invite You! I invite Chu~♥

필리핀에서 트라이시클이란?



We are TRULY living here!

우리는 지구촌 친구 * 몬테소리 스쿨에서 생긴 일(3부작) * Happy Birthday to Mommy!

여기는 지상 낙원, 판던 레이크! * Swimming Overnight * 10월의 스케치북

Mon	Tue	Wen	Thu	Fri	Sat	Sun
					1 Manila	2 Go to AURORA
3 Schooling with Children!	4 Class in Day care center Interview with nanays	5 Vaccination	6 Go to Picnic: Bazal River	7 Amy's Pig Farm Visit Reflection & C.O. Session	8 Preparation Closing Program	9 Come Back to San Pablo
10 Visit SM Mall: Campaign Confirmation	11 Preparing Campaign (~10.16)	12 Visit ALS Center	13 Feeding @Bagong Pook E/S Preparing ALS Fair	14 ALS Fair	15 English & Tagalog Class Karate	16 English & Tagalog Class
17 END POVERTY Campaign @SM Mall	18 Fiesta @San Lucas II	19 Visit Gawad Kalinga	20 Feeding @Bagong Pook E/S	21 Performance @Bagong Pook E/S	22 English & Tagalog Class Karate	23 ALS Exam Karate
24 Mapping: San Lucas II	25 Mapping: San Lucas II	26 Feeding @Bagong Pook Visit San Ignacio Visit BALOC	27 Montessori School: Judging Cheering Competition	28 Visa Trip to Manila Birthday of Mommy Kristy!	29 Go to Pandin Lake Overnight Swimming	30

* 캐릭터 소개 *

Daniel[다니엘]: 정동수. 건상(像) 오해하거 말길, 건지한 상이다. 동수(아저)씨, 뽕잇!(필리핀어로 '못생기다'라는 뜻), 재 키(Height) 참... (9월에 소개된 바 있는 재키 찬의 변형), 돌쇠, 바이어(buyer): 신조어, 사는 사람. 오로라에서 돼지 농장을 방문했을 때 돼지를 사러 온 사람처럼 보여서 붙여준 별명. 이산화탄소 배출 왕(입을 통해서), 취미는 손톱, 발톱 깎기



Albert[알버트]: 양승건. 바나나 좋아할 상(像) 9월호 표지 사건 참고, 이어나 간사님 흉내내기를 즐겨하고 곧잘 함. 뽕잇!(필리핀어로 '못생기다'라는 뜻), 꺾떡쇠, 필리핀 맥주인 '레드 홀스' 없이는 못 살아, 필리핀의 모든 맥주를 섭렵할 때까지 한국에 돌아가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음(아나 간사님..!!). 대천해수욕장에서 바가지 씌워 파라솔 파는 아저씨 흉내를 잘 냄.



Honey[허~니]: 김가훈. 곧 잘(Sleep) 상(像) 졸린 표정이 정말 졸려 보인다, 작은 아씨, 슈이크 가게에 가면 접원이 먼저 'I mango Shake biggest !!'이라고 외칠 정도의 망고슈이크 가게 단골. 깨물기 왕! 앙!



Sun[썸]: 이민선. 넘어질 상(像) 이러다 넘어질 거 같은데... 하면 꼭 넘어짐, 10월 찬달 동안 리더를 맡았다. 선도부 기질이 있음. 너무 일찍 혈이 든 큰 아씨, 자기 무덤 파기가 특기, 생선 없이는 못 살아, 화상(밤 먹을 때 고추를 손으로 잡았다가 1도 화상을 입음), 속 뒤집기가 취미, 플라(lala, 할머니) 썸

Genie[지니]: 문전희. 침 흘릴 상(像) 지니는 너무 웃기면 침을 뱉는다.. 흘리는 양이 뱉는 수준, 혈딱서니 없는 마님. 넘어질 뻔을 자주 함(잘 미끄러지거나 넘어지지는 않음), 웃을 때 위, 아래의 모든 치아를 보이며 웃음, 초콜릿 없이는 못 살아, 숨 넘어갈 상(웃다가)



월간 소식지 '작은 도마뱀'을 더 재미있게 읽기 위해 참고해야 할 것!!

* 10월의 따갈로그어 낱 인명 사전 *

Nanay[나나이]: 엄마. 엄마를 부르는 다양한 단어 중 전통적인 호칭. 그 밖에 Mama, Mamay, Inay, Mamang 등이 있다.

Tatay[따타이]: 아빠. 아빠를 부르는 다양한 단어 중 전통적인 호칭. 그 밖에 Papa, Papay, Itay, Papang 등이 있다.

Lola[롤라]: 할머니. 할아버지는 Lolo[롤로].

Bangit[뱅잇]: 못생기다. 반대말은 Pogi[뽀기] (잘생기다) 혹은 Maganda[마간다] (예쁘다).

MaSaya[마사야]: 행복하다. 필리핀에서 우리는 참 행복하다는 말을 많이 쓴다.

Ebak[에박]: Something. 대변. 이곳에서는 참 애박에 얽힌 이야기들이 많다..^^ (동수ㄷ 그냥 똥이라고 하면 되지 뭐..)

Balaram[바알람]: Good Bye!, 헤어질 때 하는 인사말.

Ingat[잉앗]: Take care!, 바알람!과 함께 항상 쓰이는 인사말.

Mga-bata[망아바따]: Chileren! 아이들을 부를 때 쓰이는 말. 바공 포옥 초등학교에서 feeding을 할 때 주로 쓴다.

Jeffrey[제프리]: 19세. YMCA of San Pablo의 Batang Y(청년 자원봉사자)들 중 대장을 맡고 있다. 한국어 습득 실력이 정말 빨라서 이제 간단한 대화는 주고 받을 수 있을 정도이다. YMCA에 있을 때 요리를 도맡아서 해서 얼마 제프리로 불리기도 한다. 책임감도 있고 열정 넘치는 친구, 특히 이번 END POVERTY 캠페인을 함께 진행하면서 더욱 활약을 했다.



Romnick[롬닉]: 17세. YMCA of San Pablo의 Batang Y(청년 자원봉사자)들 중 셋째 아기 돼지를 연상시키는 외모. 게으름의 대명사. 고음볼가를 연상시키는 노래 실력으로 우리의 귀여움을 많이 받고 있다. 가장 부지런한 날은 마미 크리스티에게 혼내고 난 다음 날.

Wilma[윌마]: 얼마 크리스티의 베스트 프렌드. 우리의 영어선생님 이신 티쳐 크리스와 함께 San Pablo MC계의 양대 산맥 중 한 분. 이번 END POVERTY 캠페인에서도 역시 오프닝 프로그램의 진행을 맡아 무대를 사로잡으셨다. 요리를 잘하시고 특히나 필리핀 버전의 한국음식 솜씨를 자랑하신다. 그 맛은 정말 Good! San Pablo의 큰 손. 앞으로도 우리와 많은 활동을 할 것이라 기대된다.



Pabl[팍스]: 우리와 함께 오로라로 떠난 YMCA of PhilippineS의 Staff. 우리는 오로라에서 그의 매력에 흠뻑 취해버렸다. (특히 여자 단원들) 관객을 사로잡는 간드러진 목소리의 열창과 귀여운 미소가 매력 포인트. 마미 크리스티와는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예를 들어 걱정과 보호가 아니라 우리를 던져두고 기르는 방식 등의..), 그렇지만 누구보다 다정다감한 그. 얼마 전 YMCA of Philippine의 General Secretary로 선출되었다. Congratulations! 그리고 우리는 당신의 팬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른 돌멩이”

매일매일 맞이하는 다양한 활동들만큼 우리의 생각도 감정도 스토리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10월 한 달이 또 금세 지났는데요. 이번 한 달, 확실히 지난 9월과는 달랐습니다. 첫 한 주는 San Pablo에서 장장 8시간이나 걸리는 AURORA에서 보냈고, 돌아 오자마자 그 다음 주에 있는 END POVERTY 캠페인을 준비하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캠페인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우리는 새롭게 시작되는 ALS 학생들을 모으기 위해 이곳 저곳을 뛰었습니다.

더 바쁘고 정신 없던 10월엔, 그렇게 멀쩡하고 힘이 넘치는 멤버들도 감기에 걸리고 힘이 빠지기도 했습니다. 몸이 아프니 감정적으로도 더 예민하거나 혹은 자치기도 쉬웠죠. 그리고 이전 한 달보다는 우리 안에서의 ‘다름’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었다고 할까요? ‘우리는 정말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다문화 가족’이라는 것을 국내훈련 때부터 새기고 왔지만 막상 살면서 부딪히고 커나가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10월이 끝날 무렵, 함께 모여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결론에 닿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른 돌멩이 같다고.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시간은 각자 다른 크기, 다른 성분, 다른 모양인 우리가 같이 살면서 서로서로를 다듬어 나가고 있는 과정 같다고.

맞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번 달은 더욱 많은 일정이 있었고, 이곳 저곳 이동한 거리가 많기도 했거든요. 이렇게 이야기 하고 나니 조금 지쳤던 시간들도 그냥 훌훌 날아가버리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런데 걱정은 하지 마세요. 모두 지금은 refreSh한 상태로 11월을 즐기고 있고, 10월 역시 우리의 소중한 시간이었다는 것, 모든 멤버들이 공감하고 있거든요! 자그락 자그락, 우리는 다듬어지고 있습니다 허헤

What can we do?

우리가 찾은 또 하나의 커뮤니티, AURORA * WEAR THE WHITE! * ALS, 그 두번째 이야기 * Feeding Program,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찾은 또 하나의 커뮤니티, AURORA

Written by Genie

행복하고 정신 없고 또 즐겁던 9월이 지나갔습니다. 10월의 첫 날부터 시작된 우리의 일정은 '오로라'라는 지역으로 떠나는 것! 라온아띠 필리핀 팀의 발걸음이 3기부터 향한 곳이죠. 그 곳에 대한 정보는 별로 들은 바가 없었고, 다만 타이푼이 불던 때라 '오

로라'라는 지역이 피해를 가장 처음으로 맞닥뜨리는 곳이다. 이번 역시 피해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만 듣고 그 곳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하니 생각과는 다르게 잘잘해 보였던 그 곳. 아니 오히려 너무나 아름답고 평화로운 풍경에 놀랐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짐을 풀고 우리는 곧바로 오로라 커뮤니티의 나나이(Nanay, 엄마)들을 만나러 나왔습니다. 여기서 잠깐 오로라에 대한 설명을 하자면요, 우리가 찾은 곳은 AURORA Province의 ALCALA라는 마을에 있는 한 커뮤니티입니다. 이 커뮤니티는 여성 중심의 커뮤니티로, 나나이들께서 남편 분들이 연는 수입 이외에 생활에 보탬을 주고자 2005년 설립하였습니다. 그리고 2006년에 YMCA의 지원을 받아 프로젝트를 시작하였습니다. 나나이들은 돼지를 기르거나, 작은 상점을 운영하거나 혹은 가공식품을 만드는 등의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그룹 내에 소모임이 6개로 나뉘어져 있고, 매월 미팅을 통해 회의를 하십니다. 회의에 참석을 하지 못하거나 지각할 때엔 벌금도 걷는 등의 규칙도 있습니다. 아, 오로라가 여성 중심 커뮤니티라고 했는데, 엄마들만 있냐구요? 아니요, 떠따이(Tatay, 아빠)도 있습니다. 이 분들은 본래 활동하시던 나나이들께서 외국으로 나가시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대신 활동하시는 분들입니다. 커뮤니티의 'Weakness'가 있다면 어떤 것인지 여쭙어 봤더니 YMCA로부터 지원받은 돈도 갚아야 하고, 아무래도 본업이 농사일이라서 커뮤니티 안에서 함께 하는 일에 모두가 집중적으로 참여할 수 없기에 더 확장을 하기가 어렵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프로젝트가 점차 안정적이게 되어가면서 처음 YMCA로부터 지원받았던 돈을 앞으로 3년 이내에 상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함께한다는 것 자체를 즐기고 있는 나나이들의 모습은 다소 부족한 점들을 무색하게 만들 정도입니다.

30명 남짓 되는 나나이들에 둘러싸여 우리를 소개하고, 기분 좋은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거 웬걸, 일주일 동안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과제는 바로 나나이들의 이름을 외우는 것..! (매일매일 센터에 가서 나나이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그 분들의 이름을 외우고 점검받습니다) 어쨌든 아직은 새로운 곳이라 열떨떨했지만 즐거운 마음을 가득 안고 짝딱한 오리엔테이션을 했습니다. 똑딱똑딱 나나이들께서 일주일 동안의 플랜을 바로 만들어 소개해주십니다.

Mon	Tue	Wed	Thu	Fri	Sat	Sun
3 Schooling with Children!	4 Class in Day care center Interview with nanays	5 Vaccination	6 Go to Picnic: Bazal River	7 Amy's Pig Farm Visit Reflection & C.O. Session	8 Preparation Closing Program	9 Come Back to San Pablo

일주일 동안의 플랜은 이렇습니다.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하루하루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곳에서 새롭게 만들어 나갈 이야기들을 기대해봅니다 ☺

Day3. 아이들, 장난 아네티? (Schooling with Children!)

첫 날의 일정은 아이들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약 4~50명의 아이들과 어떻게 하루를 재미있게 보낼 수 있을지, 도착하자마자 그 밤 열심히 이야기를 했더랬죠. 아이들이 사는 마을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큰 종이에 마을에 있는 나와 가족, 다른 많은 사람들, 그리고 마을에 있는 모든 것들로 채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음엔 수줍어하는가 싶더니, 곧 생각보다 더 재미있게 씩씩 그려나가는 아이들을 보면서 뿌듯했습니다. 점심을 먹고 난 후에는 몸을 움직이는 활동을 주로 했습니다. 역시 아이들과는 뛰놀아야 제 맛! 운동장에서 Ice and Water!(얼음뽕), 나나나 나나~ 나나나나나!(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전 기수 단원들의 작품), 풍선 터뜨리기 등을 하고 아이들에게서 게임도 배웠습니다. 우리가 있던 San Pablo에서도 많은 아이들을 만났지만, 오 이거 바공포목 초등학교 아이들보다 더 장난기 어린 행동에 힘도 세고 체력도.. 장난이 아니던데요 ㅋㅋ 무튼 아이들과 함께 어울리는 시간은 즐겁기만 합니다.^



Day4. 애들아 우리 무서운 사람 아니야.. (Class in Day Care Center) / 엄마들과의 대화 (Interview with Nanays)

오전의 일정은 나나이들께서 모이는 센터 바로 옆의 어린이집에서 짙막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첫 날에 만났던 아이들보다 많이 어리다는 말을 듣고서, 신체 부위에 대해 쉽게 알아보고 움직일 수 있는 간단한 노래와 율동(우리의 필살기 짹짹이 송)을 준비했습니다. 허, 그런데 우리가 들어서서 생글생글 웃으며 인사하자마자 아이들은 겁에 질린 표정을 짓더니 곧 세네 명의 아이들이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합니다. (알버트가 조금 큰 역할을 했을라나요) 조금 당황했지만 곧 건정시키고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알버트의 큰 몸을 예로, '바아, 두훗, 발리칸, 울로(우리 나라의 머리, 어깨, 무릎, 발 노래)'를 부르고 하나하나 아이들에게 물어봅니다. 처음엔 입을 굳게 다물고만 있더니, 곧 잘 대답을 합니다. 함께한 짹짹이 송을 부르며 율동을 할 때는 엉거주춤 움직이면서도 눈에는 장난기가 가득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서 프로그램이 마치고 밖을 나서는 데 따라와서 장난을 걸기 시작하는 아이들. 이제서야 긴장이 풀렸나 봅니다...



점심을 먹고선 나나이들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커뮤니티가 생기게 된 배경과 구조, 지금에 이르기까지의 이야기 등을 자유롭게 묻고 이야기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나나이들께서 보여주신 두 권의 노트에는 그들의 비전과 미션, 프로젝트에 대한 상세한 플랜까지의 모든 것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즐거움이 가득한 모습 뒤엔 역시 엄마들의 노력이 묻어나 있었습니다. 나나이들과 대화를 하면서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은 또 꼬리를 물고.. 차츰차츰 서로 알아가는 과정이 무척이나 뿌듯합니다.



Day5. Strong Baby 울음보 터지다. (Vaccination)

오늘도 어김없이 30분여간 차를 타고 나나이들을 만나러 이동하는 길. 가다가 마주친 자동차에 달려있는 주황색 풍선이 눈에 띄니다. 오늘은 바로 예방접종을 맞는 날! 센터에 도착하니 이미 몇 명의 아이들이 엄마에게 안겨 이곳을 찾았습니다. 다들 하나같이 겁에 질린 표정으로 말이죠. 나나이들은 아침부터 예방접종을 진행하시느라 분주하십니다. 역시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우리의 엄마들..! 아침부터 우리도 그 광경을 관찰하거나 작은 일들을 돕습니다.

항상 센터에 가면 놀고 있던 해맑은 얼굴을 가진 Strong Baby는 예방 접종을 맞고 울음이 터졌습니다. 그 울음은 40분여 동안 멈추질 않습니다.. 아무리 달래봐도 가만히 두봐도.. 나나이 딸리의 손을 잡고 집으로 가는 길에도 말이죠.. 덕분에 우리들은 웃음보가 터졌습니다. 기다려도 기다려도 그치지 않는 울음.. 평소애 자주 웃던 것만콤이나 우는 것도 장난이 아닙니다.

후에 들으니 집에 도착한 뒤 지쳐서 잠이 들었다고 하네요.

Day6. Go to picnic: Bazaal River

아침부터 분주하게 이것저것 준비하느라 엄마들은 정신이 없습니다. 바로 오늘은 소풍 가는 날! 맛있는 음식을 가득 싣고 트랙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출발! 도착하자마자 만든 코코넛 주스, 석쇠에 바로 구운 생선구이, 어딜 가나 빠지지 않는 판싯 등등 손으로 허겁지겁 먹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선 시원한 물에 풍덩! 진짜 엄마와 놀러 온 것처럼 물놀이에도 빠져있다 보니 어느덧 곧 갈 시간이 되더라고요.. 이곳에서의 순간은 MaSaSaP! 그리고 MaSaYa!



Day7. Amy's Pig Farm Visit / Reflection & C.O Session

오전에는 나나이 Amy의 돼지 농장을 방문했습니다. 돼지 농장은 오로라 커뮤니티에서 어머니들의 수입원 중 하나!



오후에는 드디어 필리핀 YMCA의 사무총장이신 띠따 열씨와 비숍 텍스 교수님이 도착 하셨습니다. 오로라에 와서 느낀 점들을 함께 공유하고 Community Organizing(이하 C.O)에 대한 세션을 들었죠. 모든 시작은 그들로부터였습니다. YMCA가 이곳에 들어서서 주민들의 필요를 파악하고, 그 뒤 엄마들은 스스로 비전과 목표를 세우며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발전시켜 온 것입니다. 그들로부터 시작하고 스스로 하게 한다는 것. 커뮤니티에 대해 조금씩 감이 잡히는 것 같습니다.

Day8. 엄마들과 함께여서 행복했습니다! (closing program)

어느덧 나나이들과 함께 하는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오전에는 오후에 있을 클로징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마침내..! 비가 오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클로징 프로그램을 시작하였습니다. 오로라에서 밤마다 함께 흥얼거리며 연습하던 'pinoy ako'를 부르고 댄스도 선보였습니다. 이전 기수로부터 배웠다며 나나이들도 Nobody댄스를 뽐내셨습니다. 함께 무대에서 춤을 추는 순간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선 특별히 준비하신 퍼포먼스가 있다며 그걸 준비하러 잠깐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엄마들이 등장하는 순간,

우리는 배꼽을 잡고 웃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건짜). 항상 쓰고 다니시던 모자와 차마를 이용해서 우스꽝스러운 분장을 하고 춤을 추는 모습이 너무 재미있고 또 사랑스러웠습니다. 웃음만 가득했던 클로징 프로그램을 마치고 작별하는 순간, 나 나이들께서 먼저 울음을 터트리셨습니다. 덕분에 곧 울음바다가 되어 헤어짐을 아쉬워했지만 그래도 웃으면서 헤어졌습니다. 앞으로 남은 3개월 여의 필리핀 생활, 나나이들과의 기억이 우리의 에너지로 쪽 남을 것 같습니다.



Daniel 오로라에서 만난 여성 공동체는 행복했다. 그들은 아픔을 함께 슬퍼하고 행복을 함께 나누고 있었다. 지역 사회 여성의 역량 강화를 위해 조직된 공동체였지만 결국 공동체도 개인의 행복을 위해 조직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해본다. 개인의 행복을 공동의 행복으로 승화시키기 위한 것이 공동체 조직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닐까? 혼자서 할 수 없는 것을 함께여서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개인의 삶이 즐겁고 공동의 삶이 행복한 것. 오로라의 여성 공동체를 통해 나는 커다란 행복을 보았다. 그 행복은 풍요로운 자연과 어우러지면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오로라에 머무는 동안 마음에 잔잔한 행복이 물결칠 수 있었던 것도 그런 자연과 함께였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 공동체를 보면서 한국에 있는 부모님이 참여하고 있는 공동체를 떠올리게 되었다. 오로라의 공동체를 보면 볼수록 내가 살고 있는 시골 마을의 지역 사회 공동체 우리 부모님이 활동하고 있는 공동체는 어떤 모습일까라는 궁금증이 생겼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C.D.를 배울 수 있었음에도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나의 어리석음을 질책했지만 한편으로 감사했다. 그 동안 나 살기만 바빴지, 부모님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지 못했는데 라온아피를 통해 부모님의 삶이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부모님의 공동체의 목적, 비전은 무엇일까? 공동체에서의 부모님은 어떤 일을 할까? 조직의 구성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공동체에서 부모님은 행복할까? 등등 많은 질문들이 머리 속에 맴돈다. 덕분에 마음이 풍요로워졌다.

사람은 혼자서 살지 못하는 사회적 동물이라고 했다. 더불어 살아야 하는 것이 사람이기에 잘 조직된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는다. 나도 행복하고, 너도 행복하고,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많아 갈수록 삶은 더욱 살만하게 느껴질 듯 하다.

Albert 1주일이란 시간은 커뮤니티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배우는데 너무나 짧은 시간이다. 그러나 나는 이 커뮤니티가 매우 강력하고 친근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들은 언제나 행복해 보였고 내가 그들의 커뮤니티에 대해서 친근감을 가지기 매우 쉬웠다. 왜냐하면 모든 nanay들이 내 친 할머니 같았기 때문이다. 모든 nanay들이 나와 우리 모두를 친절하고 따뜻하게 대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어렸을 때 내가 할머니를 따라서 할머니의 커뮤니티에 갔을 때와 비슷한 감정을 오로라에서 느꼈기 때문이다. 물론 nanay들은 할머니가 아니라며 싫어하셨지만... 하하 모두들 이해하셨다.

나는 왜 이 커뮤니티가 성공적이고 좋은 커뮤니티인지 계속 고민했었다. nanay들께서는 가난하지만 항상 행복하다고 하셨다. 당신들은 무언가를 만들거나, 혹은 누군가를 만나거나, 일하고 나눌 때도 항상 같이 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너무나 행복하다고...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셨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Together의 의미, 즉 커뮤니티를 조직 할 때 무엇이 중요한 가를 깨닫게 되었다. 짧은 기간이라 매우 아쉬웠지만 많은 경험과 좋은 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뜻 깊은 오로라로 평생 기억 할 것이다.

Honey 오로라는 한 가족이다.

오로라 커뮤니티의 나나이들은 모두 자녀가 있다. 적게는 한 명부터 많게는 7명까지. 우리가 그 곳에서 나나이들과 시간을 보내는 동안, 그들의 자녀인 아이들도 함께 했다. 아이들은 한 나나이의 품에 안겨있다가 이내 다른 나나이의 무릎에 앉았다가를 반복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이들의 진짜 어머니가 누구인가 구별 할 수가 없었다. 아이들은 어떤 한 명의 어머니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자신의 어머니인 것처럼 따르고 있었다. 나나이들 역시 그랬다. 내 아이, 네 아이 구별 없이 모든 아이들을 자신의 자식인 것처럼 대하고 있었다. 그렇게 그들은 모두 한 가족처럼 보였다. 가족처럼 지내기에 무엇을 하더라도 그들에게 그 것은 더 이상 일이 아니다. 그저 가족과 함께 하는 즐거운 활동이다. 함께하면 즐거운 사람과 하는 모든 것은 즐거울 수 밖에 없고, 즐기면서 하는 일의 결과 역시 언제나 좋다. 설령 가끔 좋지 않더라도 괜찮다. 가족과 함께라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치 가족처럼, 서로를 잘 알고 서로를 좋아한다. 그렇게 나나이들의 커뮤니티 자체가 커다란 한 가족이었다. 우리도 그러한 가족이 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 함께하는 때 순간도 그 분들처럼 행복해지지 않을까.

Genie "Oh, you look like Nina!" 오로라에 도착해 나를 소개한 순간 가장 먼저 들은 말이다. Nina는 바로 처음으로 오로라에 오기 시작한 3기 멤버 중 한 명. (한 번 만나보고 싶습니다^^) 처음 딱 든 생각은 이랬다. '와 어떻게 이름을 아직 기억하고 계시지? 그들이 특별했을까?' 그리고 나선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음 나는 여기서 어떻게 잘 할 수 있을까?' 그렇게 나나이들과의 첫 만남이 시작되었다.

사실, 모든 라온아피 멤버들의 이름이 나나이들의 기억 속에 간직되어 있었다. 그리고 매일매일 나나이들은 지난 기수들의 앨범과 기억이 될만한 물건들을 보며 그 때를 회상하고 있었다. 차츰차츰 느낄 수 있었다. 나나이들이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대하고 또 그렇게 만들어 주고 있다는 걸. 내가 마음을 열기 전 그들은 먼저 마음을 열었고 어느 순간부터인가 나는 그들을 진짜 엄마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마음을 먹었다. 여기 있는 동안 더 적극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시간을 즐겨야겠다고! 매 순간 나는 불편함보다는 편안함과 평화로움을 느꼈고 오로라의 정경은 나를 신선하게 했다. 매일, 매 번의 활동은 압박으로 다가오기 보다 즐거움으로 다가와야 한다고 생각했다. 실제로 그랬고.

처음 오로라로 떠나기 전, 오로라가 커뮤니티의 좋은 예시라는 것을 들었다. 아마도 오로라는 어떠한 문제점에서 비롯되었고, 그렇기에 그 커뮤니티의 목적 또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것일 거라는 생각을 했다. 그러나 오로라에 머무는 동안, 자연스럽게 생각이 바뀌었다. 내 생각에 오로라는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이고, 자연스러운 삶을 담고 있다고 보는 편이 맞을 것이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체계나 재정적인 요소 등이 아닌 그 그룹에 대한 멤버들의 애정이라는 것. 그래야만 하는 활동이 즐겁고 같은 비전을 꿈꾸며 함께 목표를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것이다. 나나이들은 충분히 그래 보였고 함께하고 있는 공동체에서의 삶을 즐기고 있었다!

BiShop TEX 교수님의 세션을 들으며, Community Organizing의 과정과 나나이들이 만들어 온 오로라 커뮤니티의 모습이 정말 잘 맞아떨어진다고 생각했다. 생각해보니 자연스러운 것이다. 몇 명의 사람들이 사회적 맥락과 어머니들의 필요를 파악하고 그들 스스로 동기부여를 하게끔 계기를 던졌다면 그 이후로부터는 주체가 되는 엄마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각자의 생각을 공유하고 이해하면서 비전을 내면화하고, 정기적인 미팅을 가지면서 체계를 잡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자연스레 만들어진 과정이 곧 이론으로 정립될 수 있고, 정립된 이론이 어떤 현상에 적용될 수 있다. 그 결과 장점이 부족한 점을 덮을 만큼의 지능이 된 것이다.

국내출연 때부터, 그리고 필리핀에 도착해서 수없이 들던 Community Organizing이라는 게 이제 조금 감이 잡히는 것 같기도 하다. 직접 보고 느끼면서 어렵듯이 배우는 것 같다. 아직은 아니었지만, San Pablo에서도 혹은 그 후에도 누군가를

Facilitating하고 C.O에 더 적극적으로 뛰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

오로라에서의 일주일은 정말 빨리 지나갔다. 다 알고 느끼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고 말할 순 없지만 짧다고 느낀 만큼 더 마음을 열기 위해 노력했고, 그런 만큼 그 곳에서 보낸 시간이 정말 즐겁고 행복했다고 말할 수 있다. San Pablo에서 다시 돌아오고 난 뒤, 오로라에서의 시간은 나의 '진짜 에너지'가 되어줄 것 같다.

Sun 오로라의 일주일은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동네 주민 분들의 따뜻함까지 좋은 것들뿐이었습니다.

사실은 더운 날씨에 제자신도 덩달아 지쳐서 낮 시간의 사람들과 활동하는 것보다 아침에 차를 타고 집을 나서거나 저녁이 되어 집을 돌아오면서 풍경을 감상하는 잠깐의 그 시간이 더 기다려질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로라에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난 지금은 그립습니다. 다른 건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흐릿해져 가는데 나나이, 때때이 그리고 아이들의 얼굴은 또렷하게 생각이 납니다. 저도 모르게 기분이 흐뭇해집니다.

오로라의 커뮤니티는 제가 그 곳에서 가기 전 상상했던 커뮤니티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오로라가 시골인지도 모르고 '산파블로시티와 비슷한 또 하나의 도시겠지.'라는 생각으로 간 것부터가 커다란 착각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가기 전 오로라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을 때, '여성 중심의 커뮤니티'라는 말을 가장 많이 들었기 때문에 '여성'이라는 단어에 너무 집중해서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오로라의 커뮤니티는 어떠한 문제의식(특히, 여성문제에 관한..)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필요성을 느끼고 자연스럽게 형성되었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농촌이나 도시에서 볼 수 있는 주민 자치공동체의 모습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커뮤니티가 더 체계적이고 방향성 있게 조직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가장 좋았던 모습은 그 구성원인 나나이와 때때이 분들 모두 자부심을 가지고 즐겁게 커뮤니티를 꾸려나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곳도 역시 산파블로의 아이들처럼 부모님이 대 도시로 일하러 나가신 아이들도 있고, 혼자 스넥으로 끼니를 대신하는 아이들도 있고, 학교를 가지 않는 아이들도 있고, 더러워진 옷을 계속 입고 다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곳의 아이들은 어쩐지 도시의 아이들처럼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안 계셔도, 옷이 더러워도, 경제적으로 넉넉지 않아도 차별 없이 자연의 보물들이 그들에게 제공 되고 그곳의 나나이와 때때이 역시 누구만의 나나이와 때때이가 아니라 모든 아이들의 어머니이고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오로라의 작은 다니엘이 했던 말이 떠오릅니다.(오해하시지 마시길, 라운아씨의 쿤~ 다니엘 아닙니다.) '우리한테 여기 있는 모든 아이들은 동생이고 조카랍니다.!'



WEAR THE WHITE!

—10.17 END POVERTY

필리핀에 떠나기 전 우리, 한 가지 약속을 했었죠! 그것은 바로 10월 17일 빈곤 퇴치의 날을 맞아 함께 의미 있는 움직임을 해 보자는 것. 약속을 지키기까지 그리고 그 뒤에도 우리의 이야기는 끊이지 않습니다. 한 번 들어보실래요?

* 그 첫 번째. End Poverty 캠페인 준비

END POVERTY 캠페인 준비는 한국에 있을 때부터 시작되었다. 첫 단계로 우리는 END POVERTY에 대해 각자 자료를 조사하여 우리 팀의 인터넷 클럽 게시판을 통해 공유하기로 했다. 중복되는 내용이 없게 자료를 올려야 했기 때문에 올리는 순서가 늦어질수록 점점 더 구체적이고 심화된 자료가 요구되었다. 어쩌다 보니 거의 마지막으로 자료를 올리게 된 가훈은 결국 유료사이트를 통해 자료를 구입하는 지경에 이른다. 이렇게 준비된 자료를 민선이 공책에 정리해서 필리핀으로 가져왔다.

우리는 San Pablo에 도착하고 막은 첫 번째 월요일인 9월 5일, END POVERTY 캠페인 관련 계획부터 세웠다. 매주 ALS의 수업이 없는 날인 화요일, 목요일 저녁을 캠페인 준비의 날로 정하고 우선 18일 까지 준비한 자료로 스터디를 하기로 하였다. 캠페인을 계획하기 전에 먼저 우리 스스로가 빈곤과 이 캠페인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첫째 주는 빈곤, 발전, 기아 등에 대해 고민하고, 그 다음주에는 좀 더 세부적인 이야기를 나누기로 계획을 세웠다.

9월 20일 화요일부터 본격적으로 액션 플랜에 대한 노의를 시작했다. 이 날에는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제안하면서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모았다. 22일 목요일에는 이 전에 나온 아이디어들 중 좀 더 효과적으로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으며 우리의 목적에도 부합하는 아이디어를 토의를 통해 선택하고 구체화 시켜 나갔다.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 캠페인 부스를 설치하여 END POVERTY에 대해서 모르는 다양한 사람들이 이 것에 대해 알게끔 하고 한번 더 생각해보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캠페인의 큰 그림이 그려졌다. 따라서 부스 설치장소가 어디인가가 매우 중요했는데, 우리는 산파블로 시티의 거리 등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마미 크리스티와 함께 논의하였다. 부스 설치장소 후보로는 SM mall, public market, College, City hall 앞, 산 파블로 시티의 가장 큰 호수 주변 등 다양한 장소가 거론되었다. 우리가 설정한 캠페인의 주요 타겟층을 고려하여 유동인구가 많고, 다양한 연령대와 직업군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SM mall을 1순위로 정하였다. 사실 이곳을 1순위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SM mall에서 우리의 캠페인을 허가할 지의 여부는 미지수였기 때문에, 장소가 확정된 순간 마미 크리스티를 비롯한 우리 모두는 떨 듯이 기뻐했다. 사실 이 소식을 들을 때 우리는 오로라에 있었고, 마미 크리스티는 산 파블로에 있었기 때문에 함께 뛰지는 못했지만, 마미 크리스티의 상기된 목소리로 전해진 이 소식 덕분에 우리 역시 들떠있었다.

여러 가지 캠페인을 위한 아이템을 고민하던 중에 우리 캠페인의 주 슬로건이 poverty의 상징색인 흰색을 입자는 의미인 'Wear the White!'였고, YMCA of San Pablo 식구들과의 유대감 형성에도 좋을 것 같아 캠페인을 위한 흰 티셔츠를 따로 맞춰 입을까 고민했다. 하지만 캠페인의 진정한 의미를 생각하여 원래 가지고 있는 흰 옷을 입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 맞추지 않기로 하였다. 우리는 캠페인에 필요한 모든 물품을 손수 만들었다. 작게는 흰 리본을 자르는 일부터, 설명문에 포함되는 MDGS의 8가지 목표 그림을 하나하나 그려서 오려 만들고, 설명문을 영어와 떠갈로그로 번역하고, 캠페인 날 오전 프로그램의 무대 뒤에 걸릴 현수막들도 직접 디자인하고, 캠페인의 초대장 역시 내용부터 디자인까지 전부 우리가 힘을 모아 해냈다. 손으로 직접 만들어 더 애착이 가는 이 설명문에는 하나의 웃지 못할 사연이 있다. 캠페인 하루 전날 준비를 위해 갔던 SM mall에서, 손 글씨로 되어있기 때문에 캠페인에 사용할 수 없다는 말을 갑작스럽게 듣게 된 것이다. 그 순간, 우리의 머리 속에는 MDGS의 8개 목표 그림을 직접 오려 그리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Mall manager는 내용이 'good!!!'이라며 우리를 위로했지만 실망한 기색을 감추기 어려웠다. 다행스럽게도 테이블 위에 아스테이저로 깔끔하게 포장하여 설명을 위해 놓아두기만 하고, 벽에 걸거나 세워놓지 않겠다는 우리의 계획을 설명하고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이 많은 준비들을 당연히 라온아띠만 한 것은 아니다. YMCA of San Pablo의 사무총장인 Mommy Kristy를 비롯한 청년 봉사자들인 Batang Y 그리고 많은 Y 식구들이 호스트가 되어 모두 함께 이 캠페인을 준비하였다. 미리 한국에서 준비해 온 화이트 밴드를 Batang Y에게 전달해 주고 (그 날부터 지금까지도 Batang Y는 매일 화이트밴드를 착용하고 있다☺. 왠지 그들에게 화이트 밴드가 좋은 동기부여의 도구가 된 것 같아 보인다.) 캠페인을 함께 준비하자고 제안했을 때, 처음엔 조금 부끄러워하는 듯 했지만 이내 사전까지 찾아가면서 떠갈로고 번역을 시작하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캠페인 준비를 하다 보니 어느새 우리보다 더, Mommy Kristy가 열성을 다하시는 것 같았다. 이러다 잘 차려진 밥상에 밥숟가락 하나 없는 모습이 될까 그녀의 모습에 감명을 받아 더 열심히 캠페인 준비에 몰입했다. 이렇게 라온아띠만이 아닌 이곳의 모두가 함께 했기에 더욱 뜻 깊은 캠페인을 즐겁게 준비할 수 있었다.

* 그 두 번째. 홍보 및 초청

우리는 행사를 준비하는 동시에 캠페인의 내용을 홍보하고 초대하기 위해 초청장을 제작했다. 초청장엔 End Poverty에 대해, 우리 캠페인의 목적에 대해, 어떠한 행사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초청장과 대자보를 직접 제작한 후, 우리는 초청장을 들고 이곳에 와서 이미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방문하여 캠페인을 홍보했다. Mommy 크리스티는 캠페인 준비뿐만 아니라 기관을 방문하여 홍보하는 일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했다. 우리 캠페인의 메시지는 필리핀에서뿐만 아니라 산 파블로 YMCA에서도 중요하게 고려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Mommy는 이날의 캠페인 이후의 미래까지도 생각하시며 계획을 세우셨다. 우리는 mommy와 함께 기관을 방문했다.

첫 번째 방문한 곳은 Capellan Institute. Mommy의 친구분이 (차기)교장선생님으로 계신 학교이다. 그 곳에서 민선은 홍보를 시작한다. “We invite You~~!” 그 다음으로 우리는 San Gregorio, DepED(Department of Education), Bagong Pook 초등학교, Canossa 초등학교, City Hall(BRGY. Youth Chairman 회의)을 방문하여 대자보와 함께 홍보를 하였다.

그 중 City Hall은 80명의 BRGY. Youth Chairman들이 모여서 회의를 가진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뱀(YMCA Youth Director)의 여자친구이자 BRGY. VI-E Youth Chairman인 사만다에게 부탁을 하여 방문하게 되었다. 회의가 끝나길 2시간을 기다린 끝에 드디어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우리 행사의 홍보는 ALS Fair에서도 계속된다. Mommy의 아이디어로 우리는 Sir. Leo(ALS Teacher)께 받은 ‘컬라만C(필리핀 레몬) 비누’를 하얀 색으로 포장하여 부스에서 홍보의 메시지와 함께 판매하였다. 다른 부스에서도 이미 판매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누가 사갈까 걱정하였지만 우리의 예상과 달리 꽤 많은 ALS 친구들이 구매해주었다. 그들은 비누에 우리의 사인까지 받은 후 캠페인에 동참하겠노라 약속해주었다. 많은 분들이 꼭 참여하겠다고 적극적으로 답해주셔서 기분이 좋았다. 쿵쿵쿵.. 마음이 설렌다. 우리가 잘 해낼 수 있을까?





* 그 세 번째
10월 17일 오전 프로그램!!!

준비 할 때 팀 회의 에서 퍼레이드는 그 효과와 우리의 캠페인의 방향 문제 때문에 많은 주목을 받지 못하였으나 어머니의 제안과 노력으로 정말 많은 사람이 참여 하였다. 더운 날씨 때문에 처음 계획했던 걸어가는 행진을 못했지만 피켓을 부착한 Tricycle의 행렬은 정말 장관이었다. 짧은 시간

이었지만 충분히 End poverty Campaign의 시작을 알릴 수 있었던 퍼레이드였다.



캠페인의 시작을 알리는 퍼레이드가 끝나고 SM몰의 오픈과 함께 우리의 캠페인은 막이 올랐다. 레지스트레이션을 진행하고 오전 프로그램을 준비하는데 YMCA of San Pablo City의 president인 kuya 리토께서 메인 MC 건행을 부탁하셨다. “내가? 떠갈르기도 잘 못하는데... 그렇다고 영어는?” 물론 혼자가 아니라 Tita 월마와 같이 하는 거지만 kuya 리토께서는 맛장구만 잘 치면 되고, 남녀로 같이 메인 MC를 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셔서 생각 할 겨를도 없이 바로 MC로 투입되었다. SM몰이라는 굉장한 인파가 몰리는 곳이라 엄청나게 긴장되었지만 Tita 월마의 노련한 진행에 마음이 놓여서 이내 애드립을 날려대는 나를 볼 수 있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장기자랑도 아니고 메인 MC를, 그것도 외국에서 보기는 처음이었다. 그래도 평소에 Tagalog 발음을 많이 연습한 것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 정말 소중한 경험이었다.

Pag-Ibig At Pag-Asa(9월호 참조)가 찬조공연을 왔다. 단순히 공연만이 아닌 우리 캠페인의 큰 손님이었다. 더불어 Ate Jane(Mommy의 지인)의 학생들까지 공연이 이어지면서 분위기는 서서히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이제는 라온아띠의 차례, 10월의 리더 민선이가 프리젠테이션을 맡았다. YMCA, 라온아띠, What is poverty, What is END POVERTY, 그리고 POVERTY를 ‘LeSSen’하기 위한 우리의 활동까지! 민선이의 발표와 준비한 END POVERTY 영상은 참여한 사람들에게 캠페인에 대하여 깊이 있게 알리고 라온아띠의 차례를 알리는 서막이었다. 지난 9월 13일, 나는 등수형, Sam(Youth Director-9월호 참조)과 함께 ‘Ikaw Ako’라는 필리핀 노래를 불렀다. 이 노래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필리핀 송인데 이번엔 Batang Y(청년봉사자 들)와 함께 합창으로 공연을 하게 되었다. 정말 목청껏 불러야 했다. 그래야 될 민망하기도 했지만 현지인과 현지노래를 캠페인이라는 의미 있는 자리에서 해서 더더욱 그러



한 듯 하다. 노래가 끝나고 우리는 그 동안 준비한 필살기 Nobody를 춤췄다. 한마디로 하면 노바디는 국민가요다. 정말 엄청난 환호였다. 우리의 실수와 관계없이... 이러한 공연들이 단순히 웃고 즐긴 게 아닌 자칫 무거울 수도 있는 주제의 캠페인을 가볍지도 무겁지도 않은 좋은 분위기로 만든 듯 하다. 물론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에도 한 몫 했다.

* 그 네 번째. Wear the White Ribbon ☺

Tricycle과 Van의 행렬로 이루어진 퍼레이드를 시작으로 필리핀의 End poverty 캠페인은 다채로운 공연과 유익한 강연들로 더욱 풍성해졌다. 오전 프로그램 이후 SM Food Court에서 맛난 점심을 먹고, 오후 1시부터 본격적인 캠페인을 시작하게 되었다. SM Food Court에서 점심을 해결하는 것은 SM mall of San pablo에서 캠페인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조건 중의 하나이기도 했다. 'Wear the White!', '10.17 END POVERTY DAY'라는 두 개의 타이틀로 구성된 현수막을 배경 삼아 'End poverty Campaign' 부스가 만들어졌다. 첫 번째 현수막에서는 White의 상징적 의미를 알리고 White Ribbon을 통해 End poverty 캠페인을 위한 참여를 이끌고자 했다. 또한 White Ribbon을 통한 참여 방법을 미리 알려 캠페인의 참여가 그리 어렵지 않음을 전달하고 싶었다. 두 번째 현수막에서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poverty가 무엇인지 그리고 End poverty가 무엇인지 설명하였다. 테이블에는 poverty, End poverty, MDGs에 대한 설명이 영어와 따갈로그어로 준비되었다. 그리고 라온아피가 지난 9월부터 YMCA of San pablo City에서 함께 한 활동들을 사건을 통해 소개하였다. 'ALS', 'Feeding program', 그리고 'Piso mula sa puso(마음으로부터의 1 페소)'의 내용을 담아서 우리의 활동도 결국은 End poverty와 연결된 것임을 알릴 수 있었다.



캠페인 참여를 위한 방법은 간단했다. 먼저 Registration List에 간단한 신상정보를 기입한 후 미리 준비된 White Ribbon을 건네 받으면 본인이 생각하는 End poverty에 관련된 소망, 각오 등의 메시지를 리본 위에 적고 손목에 묶는다. 'Wear the White!' 와 '10.17 END POVERTY DAY' 현수막을 배경으로 본인의 메시지가 담긴 화이트 리본을 뽐내며 인증샷을 찍으면 끝!

잠깐! 여기서 화이트 리본은요, 우선 'POVERTY'의 상징인 흰색을 착용하자라는 의미도 있지만 다른 두 가지 의미도 지니고 있습니다. 손목에 묶은 리본이 저절로 풀리지거나 끊어질 경우 리본에 적은 메시지나 소망은 이루어진다는 것, 그리고 또한 빈곤의 연속을 끊는다는 의미이지요.

처음에는 낯선 사람들에게 캠페인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서서히 캠페인에 몰입하게 되었고 어느새 나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있었다. 'Paki basa po ito! =please read this!'를 연신 외치며 사람들과 대화를 시작했다. 무슨 행사를 하고 있는지 조금의 관심은 보였지만 선뜻 참여하는 사람이 그다지 많지는 않았다. 하나 둘 사람들이 모여 들기 시작하자 지나가는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을 쯤에, 캠페인 현수막의 내용을 오랫동안 보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 사뭇 건지한 모습에 행어 방해가 되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에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캠페인

페인에 참여해달라는 나의 제안에 되돌아 온 대답은 White Ribbon에 적을 End poverty에 대한 메시지를 고민하고 있다는 말이었다. 또한 친구들끼리 어떠한 메시지를 쓸까 고민하고 서로의 메시지를 공유하는 모습 등을 보면서, 준비하는 동안의 육체적, 정신적으로 힘들었던 기억들이 말끔히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다. 그렇게 White Ribbon들은 다양한 메시지를 담아 우리의 부스를 떠나고 있었다. 하나 둘씩 늘어난 Registration List의 이름들은 어느덧 200명을 훌쩍 넘어 우리의 목표인 300명을 향해 달려갔다. 캠페인이 막바지에 다다랐을 무렵, SM 관계자 분들께서 방문하셔서 우리가 준비한 작은 감사 메시지를 드리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관계자 분들도 캠페인에 동참하고자 Registration List에 등록하고 White Ribbon에 각자의 메시지를 담았다. 우연이었을까? 캠페인을 진행하는데 큰 도움을 주신 Miss Yam이 캠페인의 300번째 참여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우리는 Miss Yam께 축하의 박수와 함께 부스에서 단독 사진을 찍어 드렸다. 어느덧 오후 5시. 라온 아피 6기 필리핀 팀의 End poverty 캠페인은 공식적으로 등록된 305명과 함께 마무리 되었다.



ALS, 그 두번째 이야기

Written by Daniel

어느덧 10월. 매년 10월은 ALS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떨리는 시간이다. 지난 1년 동안 준비한 시험이 있는 달이기 때문이다. 지난 달에 이미 소개한 바 있지만, 다시 소개하자면 ALS는 'Alternative Learning System'의 약자로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교육 시스템이다. 'YMCA of San Pablo City'는 ALS의 Service Provider로서 3 곳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매년 10월이면 ALS 학생들은 자신의 수준에 맞는 시험을 치르게 된다. 한국의 검정고시와 비슷한 시험으로 'A&E(Acceleration & Equivalency)'라 불린다. 시험은 초등, 고등 레벨 등, 두 가지 레벨이 있다. 초등 레벨의 응시 자격은 만 11세부터, 고등 레벨의 응시 자격은 만 15세부터 주어진다. 시험은 총 4 과목으로 '수학', '읽기', '에세이(쓰기)', '필리핀'이며 각각 45분의 시간 동안 진행된다. '필리핀' 과목은 필리핀의 역사, 필리핀의 문화 등에 대해 다룬다. 시험의 결과는 이듬해 2~3월경에 발표되며 온라인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2010년 기준으로 38%의 응시자가 시험을 통과했다.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더라도 결과를 통해 응시자 본인의 현재 레벨이 정규 교육과 비교했을 때 몇 학년 정도 되는지 알 수 있다. 현재 San Pablo City에서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약 4,500명 가량이다. 또한, 전체 청소년 중 약 10% 이상이 정규 교육을 받아야 하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고 있다. 초등 레벨 시험을 통과한 학생은 고등 레벨 시험의 응시 자격이 주어지며, 고등 레벨 시험 통과자는 대학에 입학 할 자격이 주어진다. 따라서 본인이 희망하면 6월에 시작되는 대학 등록 기간에 등록이 가능하다.

지난 10월 23일 일요일, 2011년도 'A&E'가 치러졌다. 시험은 오전 7시에 시작한다. 우리는 시험에 응시하는 ALS 학생들을 응원하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시험 장소로 향했다. 학생들에게 물, 과자, 사탕 등의 간식을 나눠주며 그들의 건투를 빌었다. 시험을 앞두고 긴장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학생들은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다. 나는 시험에 앞서 긴장을 하는 타입이어서, 그런 여유로운 모습에 이곳이 시험장이 맞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다. 하지만 시험이 시작되고 시험장 안에서 시험을 치르는 학생들을 보았을 때, 아까의 여유로



움과는 사뭇 다른 건지함을 볼 수 있었다. 역시 시험은 시험이었다. 시험에 있어서 특히 한국과 다르게 보였던 점은 시험이 시작한 후 1시간, 혹은 그보다 더 늦은 학생까지도 시험을 치를 수 있었다는 점이다. 내가 보기엔 시험을 응시하기엔 너무 늦게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곳에서는 비록 시작 시간이 지났더라도 남은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시험장의 문을 계속 열어둔다고 했다. 오전 7시가 넘어 시작된 시험은 오후 12시가 다 되어 끝이 났다.

시험 이후 Mommy Kristy와의 대화를 통해 사람들이 왜 ALS에 등록하고, 시험에 응시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1년에 두 번(5월~9월, 11월~이듬해 3월), 5개월 과정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ALS의 첫 시간에 학생들에게 'Why did you enroll the ALS?'라는 주제로 쓰도록 한 에세이의 내용에서 그들의 등록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직업이 없는 학생의 경우에는 직업을 구하기 위해, 직업이 있는 학생의 경우에는 더 나은 직업을 구하기 위함이 대부분이었다. 그들은 직업을 통해 더 나은 생활을 하길 원하고, 그 것을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하다. 집안 형편의 어려움이나 개인적인 어려움 등으로 학교에서 교육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있어 ALS는 새로운 출발의 기회가 되는 셈이었다.

이번 11월부터 새로운 ALS 5개월 과정 프로그램이 시작된다. 이러한 이유로 10월 중순부터 프로그램에 참여할 학생들을 모집하기 위해 가정을 방문하여 ALS를 설명하고 등록하도록 권유하는 Mapping이 진행됐다. 모집 대상은 아직 한번도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 이전에 교육을 받았으나 시간이 오래되어 재교육이 필요한 사람, 바로 직전에 교육을 받았으나 좀 더 교육이 필요한 사람 등, 크게 3부류로 나누어졌다. 우리가 방문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등록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 오랜 시간 ALS를 설명하고 자세한 사항을 전달하고 나서야 어렵게 등록하는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가정의 생계를 위해 부모가 자녀의 교육을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생활의 어려움 때문에 교육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보면서 우리가 쉽게 받을 수 있었던 교육이 얼마나 소중한 혜택이었는지를 깨달았다. YMCA of San Pablo



City는 Mapping과 자발적인 등록을 통해 모인 학생들과 함께, 직전 프로그램까지 진행되고 있었던 3곳 외에도 추가된 1곳까지, 총 4군데에서 교육을 진행할 예정에 있다.

A&E와 Mapping을 통해, 우리가 이곳에서 보내고 있는 소중한 시간이 그들에게는 더욱 소중한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이번 프로그램에 임하는 나와 라온아띠의 자세는 더욱 신중하고 깊어지게 되었다.

Feeding program,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Written by Honey

3주 만에 아이들을 만났다. 더 반갑다. 오로라 떠나기 전 주에는 태풍의 영향으로 휴교령이 내려져서 갈 수가 없었고, 오로라에 있는 주 역시 피딩 프로그램을 진행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찬창 자랄 나이여서 인지 몰라보게 쑥쑥 자란 아이들의 모습에 조금은 놀랐다. 우리는 아침 8시 30분에 도착해서 학교 찬 칸에 불을 피우고 음식 만들 장소를 마련한다. 아띠 두 분의 도움을 받아 음식을 준비하고, 곧 음식이 완성되면 아이들을 부른다. 'Manga bata~ Kain na~ (=Children~ Let's eat~)' 소리에 아이들은 쪼르르 찬 줄로 선다. 아이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고 싶다면 아침 식사 한 지 한 시간밖에 안됐는데 군침이 돈다. 아, 이번 주의 음식은 로미! 닭고기, 소시지, 각종 야채가 들어간 국수다. 배식을 해주던 동수는 아이들에게 푸짐하게 주고 싶은 마음이 앞서, 그릇 찬 가득 면발과 건더기들을 채워주다 결국 나중에 배식 받는 아이들에겐 아주 약간의 건더기와 국물 만이 돌아갔다. 이 사태에 책임을 통감한 동수는 배식 사퇴를 선언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거의 국물 밖에 없는 로미도 아이들은 맛있게 먹었다. 아... 아이들에게 미안하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시간에는 미리 그릇에 음식의 양을 고르게 분배해놓기로 계획했다. 다음부터 모든 아이들에게 고루고루 음식을 나누어 주어야지!!

이렇게 아이들의 식사가 끝나면, 음식 피딩이 아닌 다른 피딩이 기다리고 있다. 바로 아이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피딩이다. 지난 달 우리가 처음으로 준비했던 프로그램은 바로 '쪽쪽이 송'이다. 한국 동요 '깡깡총 체조'를 따갈로그로 개사하고 간단한 율동도 만들었다. 쪽쪽 펴는 체조 동작으로 성장기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는 민선의 아이디어로 시작된 계획이었다. 열심히 준비한 했지만, 사실 100%의 확신은 없었다. 그런데 웬걸, 반응이 너무 좋았다. 'Isa pa!(=one more!)'를 계속 외치는 아이들 덕분에 우리 모두는 지칠 때까지 노래하고 춤췄다. 그 후 동네를 걸어 다닐 때도 우리는 종종 'zook, zook, zook~'하고 노래 부르는 아이들을 마주치곤 한다.

피딩 프로그램에 등록된 대상 아이들은 총 46명인데 지난 달 식사 후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이들의 숫자는 30명 남짓밖에 안되었다. 아예 학교에 결석했거나, 부끄러움이 많아서 오지 못했을 것이라고 추측해본다. 그런데 이번 주 프로그램에는 무려 42명이나 왔다. 아이들이 많이 와서 기뻐다. 그러나 찬 편으로 미안한 감정이 들었다. 왜냐하면 이번 주 프로그램으로 준비했던 이름표의 개수가 부족해서 모두에게 나누어 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아이들에게 빈 이름표를 나누어주고 그 곳에 자신의 이름을 적게끔 찬 후, 그 이름을 찬글받음으로 직접 우리가 적어주었다. 항상 먼저 아띠 누구, 쿡야 누구 하면서 아이들이 먼저 다가와주는 것처럼 우리들도 아이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주면서 찬발 더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에 준비한 프로그램이었다. 조금 모자랐던 이름표 개수 때문에 다음부터 항상 넉넉하게 준비를 해야겠다고 생각하며 어쩔 수 없이 못 받은 아이들의 이름을 적어두고 기억했다. 하지만 그 덕분에, 비록 모든 아이들의 얼굴과 이름은 아직 다 외우지 못하지만 그 아이의 이름과 얼굴은 너무나 잘 알아보게 되었다.

10월의 마지막 주는 아이들의 짧은 방학이 있다. 그래서 우리의 피딩은 한 주 쉬어야만 했다. 하지만, GEMCD(Government Employees Multi-purpose COoperative)에서 필리핀의 인기 패스트푸드점인 줄리비 후원을 받은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피딩을 진행할 수 있었다. 줄리비 피딩이 예정된 하루 전 날부터 우리 집 앞에서 만난 동네 아이들은 연신 ‘줄리비~줄리비~’를 외쳐댔다. 아이들이 얼마나 줄리비를 좋아하는지, 또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예상할 수 있었다. 줄리비 피딩이 진행된 날, 아이들에게는 각각 스파게티와 햄버거 그리고 음료가 주어졌는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모두 먹지 않고, 스파게티와 햄버거 둘 중 꼭 하나는 남겨두었다. 처음엔 양이 많아서 그런가 싶었는데 알고 보니 집에 있는 형제를 주거나 부모님께 가져다 드리려고 먹지 않고 남겨두는 것이었다. 이렇게 작은 아이들이 자신의 가족을 생각해서 먹고 싶은 음식을 남겨서 챙겨가다니..... 순간 아이들이 아직 몸은 작지만 그 마음만은 이미 코다는 걸 느껴, 이렇게나 예쁜 아이들에게 좀 더 많은 즐거움을 주고 싶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렇게 꼭 해야겠다고 다짐한다.



Acculturate, Enculturate!

I invite You! I invite Chu~♥ * 필리핀에서 트라이시클이란?

I invite You! I invite Chu~♥

Written by SUN

필리핀에 온지 두 달 동안 가장 많이 느꼈던 것은 이곳의 문턱이 낮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들의 집 문턱이 낮기도 하고요. 그들의 마음의 문턱도 낮은 듯 합니다. 그 동안 우리는 정말 많은 곳에서 초대를 받았습니다. Mommy 크리스티의 나나이(시아머니)와 띠띠이(시아버지)의 생신초대, 친구분의 결혼기념 초대, Fiesta초대, Kuya 리모(YMCA 프레지던트)의 아버님 생일초대까지.. 물론 우리가 이곳에 방문한 외국인이기 때문에 더 많은 초대와 친절을 베풀어 주시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따스한 정

은 그들의 마음에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Mommy의 나나이 생신에 처음 초대를 받았던 날이었습니다. 우리는 처음 뵙는 분들이 있는 집에 초대를 받는 것이었기 때문에 입고 있는 복장까지 신경 쓰고 갔습니다. 그런데 웬걸.. 도착하자마자 영딩이도 부치기 전에 먹기부터 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먹기 시작하자 다른 집 식구들도 오기 시작했습니다. 친척이 아닌 분들도 많이 오십니다. 모두 자연스럽게 접시부터 집어 드십니다. 처음엔 한국에선 겪어보지 못했던 모습에 살짝 당황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이제는 이러한 모습을 너무나 익숙하고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아! 음식 맛은요. 음식들은 비싸고 화려한 요리들은 아니지만 정성스럽게 만들어 손님들에게 대접하십니다. 'MaSarap(맛있어요)!'이라는 말을 하면 정말 좋아하시면서 돌아갈 때 음식을 싸주시기까지 하십니다.

늘 초대만 받았던 우리도 드디어 초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SM몰에서 End poverty 캠페인을 열었습니다. 그 때 우리는 이곳에 와서 우리와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을 초대하였습니다. 기관을 방문한 썬은 말합니다. "I invite chu!"

얼마 얼마나 오겠어..라는 생각이 무색하게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물론, 좀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우리의 초대가 아니라 어머니의 초대로 오신 분들이지만 저희의 공연과 행사를 보시고 또다시 그 분들께 초대를 받았습니다. 초대를 하고 또다시 초대를 받고 부담 없이 문턱을 넘나드는 이곳, 이곳이 참 좋습니다.



필리핀에서 트라이시클이란?

Written by Albert

Tricycle! 모터사이클과 3각을 뜻하는 트라이의 합성어로 필리핀의 대중교통수단이다. 모터사이클을 승객차와 연결 및 개조하여 승객 1~5명 정도를 태울 수 있게 만든 대중교통수단이다. 대개 짧은 거리나 차가 다니기 힘든 좁은 길을 갈 때 이용하며 기본 요금은 1인당 8~10페소 정도이고 승객 수, 거리, 운행 지역에 따라 요금이 달라진다.

모터사이클의 특성인 좁은 길을 잘 빠져 나가는 것이 이 Tricycle의 기원이자 대중교통화 된 가장 큰 이유이다. 필리핀은 다른 나라에 비해 좁은 길이 많고, 집이 옹기종기 붙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개인용 모토사이클 이외에 대중교통으로 이용한다. 그러나 마닐라와 같은 대도시의 큰 길에서는 사고의 위험 때문에 정부에서 Tricycle을 금지하였다.

우리가 처음 필리핀에서 탔던 교통수단 역시 Tricycle 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교통수단 이기에 신기하기도 하였고 시원함을 만끽해서 좋았지만 가끔 매연을 그대로 마시는 위치와 높이인터다 굉장히 좁아서(특히 나에겐) 불편하기도 했다. 이제는 택시보다 훨씬 익숙해질 정도로 애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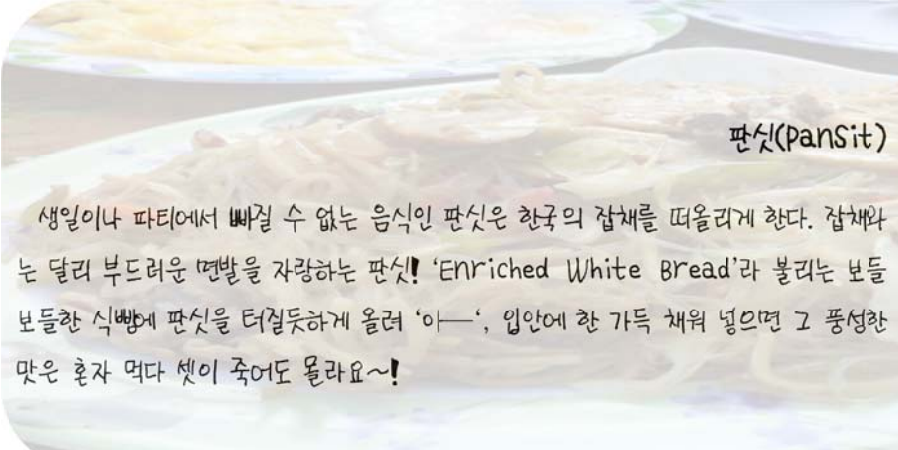
이 Tricycle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겐 생계수단 이기도 하지만 각자 개성 있게 자신의 Tricycle을 꾸미고 개조하는 모습이 흡사 자신의 자가용(애마)를 관리하는 것 같아 보인다. Tricycle 드라이버들끼리 조합과 비슷한 단체가 있어서 그들끼리 정보를 공유하고 보다 더 나은 발전을 위하여 힘쓰고 있는 것도 필리핀에서 Tricycle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요소이다. Batang Y(YMCA청년 봉사자들) 친구 중 한명인 Bernie는 과거에 Tricycle 드라이버였는데 나에게 많은 이야기를 해주었다. 기원과 자신의 경험 등...물론 좋은 이야기만 한 것은 아니다. 그는 비가오면 무릎에 통증을 아주 심하게 느끼는데 모터사이클의 진동으로 인한 직업병 같은 것이다.....힘내 버니야!! 필리핀에서 가장 대표적 교통수단이자 색다른 문화이기도 한 Tricycle에 대해서 많이 알게 해준 버니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또 다른 대중 교통수단으로 특히 서민들이 Tricycle과 함께 많이 이용하는 지프니를 들 수 있다. Tricycle과 함께 필리핀 대중교통의 양대 산맥이며 주로 장거리를 갈 때 이용하는 우리나라의 시내버스 개념으로 생각하면 된다. 이 지프니는 군용지프 모양의 승합차로 통상 15~20명 이상 승차한다. 요금은 Tricycle보다 조금 저렴한 8페소 정도이며 거리와 지역에 따라 달라진다. 현지인들이 나에게 처음 지프니를 소개해 줄 때 한 말이 지프니는 에어컨이 있다고 하였다. “열라? 어디?” 했는데 에어컨이셔너가 아니라 에어컨티뉴였다. 하하하하... Tricycle이 대도시의 큰길에서는 금지되고 대신 택시가 권장된 데 비하여 지프니는 필리핀 어느 곳에서나 흔하고 시민들의 발이라고 할 수 있다. 맨 앞 자리에 앉으면 다른 사람이 교통비를 낼 때 운전수에게 계속 건네주고 거스름 돈을 전달해주어야 해서 항상 마지막까지 자리가 비어있는 재미있는 지프니.....




지프니와 Tricycle로 대표되는 필리핀의 재미있는 교통수단 때문에 우리는 이동할 때에도 항상 즐겁다!

이 달의 마사람!!



판싯(pansit)

생일이나 파티에서 빠질 수 없는 음식인 판싯은 한국의 잡채를 떠올리게 한다. 잡채와는 달리 부드러운 면발을 자랑하는 판싯! 'Enriched White Bread'라 불리는 보들 보들한 식빵에 판싯을 터질듯하게 올려 '아—', 입안에 한 가득 채워 넣으면 그 풍성한 맛은 혼자 먹다 셋이 죽어도 몰라요~!



We are TRULY living here!

우리는 지구촌 친구 * 몬테소리 스쿨에서 생긴 일(3부작) * Happy Birthday to Mommy! * 여기는 지상 낙원, 판던 레이크!
* Swimming Overnight * 10월의 스케치북

우리는 지구촌 친구! _United Nations Day



Written by SUN

United Nations day는 10월24일 단 하루 필리핀에서 열리는 행사입니다. 이 날은 필리핀만의 행사가 아니라 세계적으로 국가들이 하나로 단결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라고 합니다. 이 날 필리핀의 초등학교에선 아이들이 다른 나라의 전통의상을 입고 사람들에게 그들의 모습을 선보입니다.

우리는 바공 포옥 초등학교의 축제에 초대받았습니다. 우리도 역시 한국에서 준비해온 한복을 곱게 차려 입었습니다. 하하.. 남자 단원들은 민복을 입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머슴 같았습니다. 얼굴 위에 탈까지 쓰니 오빠들의 모습이 정말 재미났습니다. 한복을 입은 우리는 한 손에는 라온아띠 유니폼을 들고 바공 포옥 초등학교로 향했습니다. 우리도 이곳에서 또다시 댄스 공연을 하였습니다. 좀더 완성도 높은 노바디(NOBODY)

를 추기 위해 우리는 전날 밤 열심히 춤을 추었죠.

바공 포옥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무대 위 가운데 특별적으로 안내 되었습니다. 게다가 저는 이번 달 리더의 자격으로 특별히 costume contest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런 대접까지 받아보지 못한 터라 감사하다 못해 황송하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Mommy Kristy를 따라 심사위원 석으로 갔습니다. 아이들이 모두 귀엽고 예뻐서 때문에 냉정하게 점수를 매기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점수를 다 매긴 뒤 mommy의 점수표를 보았을 때 저는 놀랐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참 냉정하게 점수를 매기셨구나.' 심사가 끝난 이후에 안 얘기지만, mommy 역시 다른 사람들의 점수표와 비교하시곤 (그녀의 표현대로) Shy를 느끼셨다고 합니다.

의상 중에는 'Korea'도 있었습니다. Korea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사심을 담아 점수를 한껏 높게 줄 마음으로 그 어린이를 쳐다보았습니다. 이빨사... 어떤 나라 복장인지 모르겠습니다. 모자는 갓인지 마법사들이 쓰는 모자인지 모르겠고 의상 역시 다른 나라 복장을 보는 듯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전통의상을 제대로 그들에게 소개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우리는 맛난 판싯과 파인애플 주스를 대접 받았습니다. 정말 맛있었습니다. 저는 심사에 대한 답례로 또 다른 선물까지 받았습니다. 정말 특별하고 즐거웠던 경험이었습니다.



1부

어느 날, 매주 토요일마다 우리의 영어수업을 책임지는 Teacher Cris로부터 전갈이 왔다. 선생님께서 근무하시는 Montessori School의 'Cheering Competition'의 심사위원으로 초청한다는 것이 바로 그 내용이었다. 'Cheering Competition'을 직접 보는 것은 처음이라 어떤 모습일지 기대하며 학교로 들어섰다. 하지만 마침 작은 비가 내리고 있어서 바로 옆에 위치한 다른 학교로 장소를 옮겨갔다. 우리가 강당으로 들어서자, 많은 학생들이 각자의 유니폼을 입고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사뭇 건지해 보였다. 산파블로 MC계의 양대산맥 Teacher Cris는 (참고로 다른 산맥은 END POVERTY 캠페인 오프닝 프로그램에서 무대를 장악한 tita 율마. PANDIN Lake에서 그 활약상이 다시 한번 펼쳐짐.) 화려한 수식어구를 사용하여 멋들어서게 우리를 소개해주셨다. 라온아피는 무려 가무에 특별한 재능이 있는 팀이라고 화려하게 소개되었다. 아마도 지난 캠페인 때의 공연이 Teacher Cris의 인상에 깊게 남아있었나 보다.

라온아피는 가흔이를 중심으로 나란히 앉아서 매의 눈으로 심사를 하기 시작했다. Competition은 Lucena(Red), Talisay(Blue), Lipa(Green), San pablo City(Yellow) 등 4곳의 학생들이 유치부, 초등부, 고등부로 나뉘어 경연을 하였다. (참고로, ()안은 각 학교별 상징색) 왜냐하면 Montessori School은 우리가 살고 있는 San pablo City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여러 도시에도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경연이 시작되고 매의 눈으로 심사를 할 거라고 했던 라온아피 중 일부는 심사위원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말았다. 학생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퍼포먼스에 감탄을 금치 못하며 결국 Cheering을 그저 감상하는 지경에 이른다. 공중 텀블링은 기본이고, 불 쇼까지 가미된 퍼포먼스는 학생들이 이 날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연습 했을 지를 짐작 가능하게 했다. 그래서 최대한 건지하고 공정하게 심사하려고, 총 100점인 점수를 5명이 20점씩 나누어 가건 후 최종적으로 합산하는 방식으로 기록했는데 꽤 체계적이었다고 자부한다.



이 날, 우리는 심사에 대한 선물로 Montessori School의 로고가 박혀있는 크로스 백을 받았다. 유치원생의 가방처럼 조그맣긴 했지만 그래서 더 귀여웠다. 그리고 곧 승건은 비자 연장을 위한 여정을 떠날 때, 이 가방을 메고 마닐라로 향한다. 열핏 보면 그 모습은 마치 동네 마실 나가는 것 같았으나 괜찮다. 가방이 편하면 됐지.

2부

Montessori School에는 한국인 학생이 있었다. 우리는 필리핀에 와서 처음으로 라온아띠가 아닌 한국인과 대화를 하게 되었다. 이곳에 온지 3년이 되었다는 유현모(11세)군은 Teacher Cris의 부탁으로 우리의 통역을 맡았다고 했다. 오랜만에 한국인 소년을 보니 궁금한 게 갑자기 엄청 많아져서 이것저것 다 물어보았다. 형제는 있는지, 방과후엔 주로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 지 등등. 평소에 필리핀 사람들과 만날 때도 이렇게만 물어봤다면 참~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계속되는 질문 끝에 우리에게 대해 궁금한 것은 없는지 물어보았다. 그리고 현모군에게 동수의 나이를 추측할 수 있겠냐고 묻자, '31살?' 이라고 구체적인 숫자를 답해주었다. 우리도 어느 정도 높은 나이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으나, 어쨌든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되물어 보았다. 소년은 전혀 미안한 기색이 없이 '그냥 그렇게 보여요.' 라고 차분한 말투로 표정하나 변하지 않고 말하였다. 동수는 그 이후로 현모군과 이야기 하지 않았다. 다만, 종종 현모군이 설심해 보이면 그와 놀아주라고 시키기만 했다.

3부

건희는 점심으로 주어진 치킨을 플라스틱 포크로 먹다가 부러뜨렸다. 숟가락도 부러뜨렸다. 처음엔 포크가 플라스틱이라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으나, 다른 사람들은 다 멀쩡하다는 걸 깨닫고 '아, 그건 아니구나. 다른 이유가 있겠구나' 하고 짐작했다. (예를 들면, 건희의 치킨이 유난히 딱딱하다거나 하는...) 말이 나왔으니 얘기하는 건데, 사실 이곳에서 프라이드 치킨은 밥과 함께 먹는 반찬이다. 처음 프라이드 치킨을 밥상에서 접했을 땐 '어라, 이건 안준터? 반찬이 아닌터? 왜 여기 있지?' 라고 생각했으나 이내 밥과의 조합이 괜찮다는 것을 깨닫고 맛있게 먹었다. 맛의 선세계가 열린 것이다. 이곳에서 알게 된 맛의 선세계를 향가지 더 소개하자면 식빵 사이에 스파게티를 샌드위치처럼 끼워먹는 것이다. 상상하는 만큼 맛있다!



Happy Birthday to Mommy!

Written by Genie

새벽부터 비몽사몽으로 마닐라 행 버스를 탔다. 오늘은 바로 비자를 연장하러 가야 하는 날! 약 두 시간 정도 버스를 타고 마닐라로 가 지프니를 타고 필리핀 YMCA 건물에 도착했다. 함께 동행하기로 하신 아띠 마리셀은 우리를 보자마자 놀라셨다. 필리핀은 특히나 공공기관의 출입이 엄격해 반바지로는 출입이 되지 않는데 우리가 반바지를 입고 온 것.. 잠깐 어라 이거 비자 연장 못하게 되는 거 아냐..라는 걱정을 했지만 엄마와 씬이 우리의 여권을 들고가 안에서 업무를 보게 되었고 나머지는 밖에서 엄마를 기다렸다. 비자 연장을 마치고서 점심을 먹고 나니 시간은 세시를 훌쩍 넘겼다. 어라 이거 시간이 늦어지는데.. 사실 오늘은 마미 크리스티의 생일이다. 그러나 우리는 마닐라에서까지 마미의 생일을 모른 척하고 있었다. San Pablo에 도착하자마자 마미를 위한 서프라이즈 파티를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버스를 타고 돌아가는 길에 우리는 짹(마미 크리스티의 딸)과 들리지 않게 조심조심 연락을 주고 받았다.

마미가 집에 도착해 문을 여는 순간! 마미의 부모님과 친척, 그리고 지인들이 모두 모여 서프라이즈! 마미는 바로 울음을 터뜨렸다. 마미 크리스티는 올해가 딱 50번째 생신이셨는데, 알고 보니 필리핀에서는 50번째 생일이 아주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한다. 50번째 생일을 'Golden Birthday'라고 하는데, 50은 100의 딱 절반이 되는 숫자이기도 하고,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았다는 것에 대해 특별히 더 감사하는 것이다. 우리는 엄마 몰래 며칠 전부터 비디오 클립을 찍고 롤링페이퍼를 준비했고, 한국 음식인 고추장 불고기를 다니엘을 중심으로 준비해 선보였다. 마미는 너무나 감동을 받은 듯 했다.

마미의 친구, 가족들이 한 명 한 명 나와서 메시지를 전하는 순간이 있었다. 거의 모두가 메시지를 말하면서 울음을 터뜨렸다. 원래 생일이 이렇게 우는 날인가..하고 처음엔 의아했다. 하지만 곧 느낄 수 있었다. 비록 떠갈로고어라 모든 말을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그들은 정말로 마미의 생일을 축하하고 함께 기뻐하고 있다는 걸. 기쁜 일을 건실로 기뻐해주는 것이 오히려 슬픔을 함께 나누는 것보다 더 어려울 지 모른다. 그리고 마미에게 눈물을 보일 정도로 감사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 또한 뭉클했다. 마미가 사람을 대하는 것, 다가서는 것에 대해 정말 많이 배우고 있기에 내가 뿌듯할 정도였다. 사실 난 한국에서도 그렇고 가족들에게 애교를 부리거나 잘 표현하는 딸이 아니다. 여기서 엄마에게 메시지를 전하는데 갑자기 울컥하고 말았다. 2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을 함께 했지만 항상 우리를 챙겨주시고 사랑해주시는 마미 크리스티가 진짜 엄마 같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다. 준비했던 순서들을 진행하고 모두가 준비해 온 음식을 나눠먹으며 노래 하며 행복한 밤을 보냈다. 엄마와 엄마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차츰차츰 우리는 '가족'이라는 단어 안에 녹아 들어가고 있는 것 같다. 이방인으로서가 아니라 엄마와 아들, 딸로서. 이곳에서 만난 엄마, 이모, 삼촌, 언니, 동생들과 함께 더 '잘' 살고 싶다!



여기는 지상 낙원 판딘 레이크!

Written by Daniel

7개의 호수로 잘 알려진 San Pablo City. 오늘은 지난 번 San Pablo Lake에 이어 두 번째 Lake Tour를 가는 날이다. San Pablo City의 큰손인 Tita Wilma의 계획 아래 찬껏 들뜬 마음으로 Pandin Lake로 향했다. 호수라고 해서 가까운 거리인줄 알았는데 주차장에서 호수까지 약 15분 가량 산길을 따라 걸어야 했다. 우리가 먹을 점심과 간식을 양손 가득 들고 걷다 보니, 어느새 'Welcome to Pandin Lake'가 우리를 반기고 있었다. 눈 앞에 펼쳐진 호수의 절경은 영화 '쥐라기 공원'의 한 장면 같았다.

설레는 마음이 채 떠나기 전에 우리는 대나무로 만들어진 팻목에 몸을 실었다. 난생 처음 타보는 팻목 때문인지 들뜬 마음이 점점 커졌다. 잔잔한 호수를 가로지르며 호수 중앙에 다다르니 거대한 푸른 병풍이 우리를 에워싸는 듯 했다. 그 위로 내리쬐는 햇살과 함께 서늘한 바람까지 곁들여지다 보니 이번 한 달 동안 쌓여 있던 육체적, 정신적 피로가 씻겨 내려가는 듯 했다. 지난 달에

는 San Vicente에서 였다면 10월의 자양강장제는 이곳, Pandin Lake에서 얻을 수 있었다. 자연의 풍요로움을 가득 안고 호수 위에서 점심 식사를 했다. 놀랍게도 메뉴는 다름 아닌 김치와 잡채, 그리고 불고기! 한국을 떠나온 지 두 달여…… 그런 우리에게 Tita Wilma가 한국 음식을 선물해 주신 것이다. 안 그래도 한국 음식을 그리워하고 있던 라온아파에게 있어서 생명이와도 같은 것이었다. 우리는 맛있는 행복을 주신 Tita Wilma에게 무한 감사의 말씀을 전했다. 식사 후에는 건너편 쪽으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Yambu Lake도 볼 수 있었다. 이로써 7개의 호수 중 3개를 방문하게 됐다.

이젠 모든 일정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 심신의 피로, 잡념 등은 다 털어버리고 산뜻한 에너지로 재충전해서인지 몸도 마음도 한껏 가벼워 졌다. 자연과 함께여서 더욱 행복했던 시간들. 바로 이곳이 지상 낙원이 아닐까?



Swimming overnight



Written by Albert

2일간 잠을 못 자서…… overnight을 건짜로 했으니 힘들긴 힘들다. 하지만 어머니의 생신의 연장선상으로 모든 YMCA 패밀리와의 일탈(?)은 매우 뜻 깊었다. 오랜만에 물에 몸을 담그며 수영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낸 것도 있지만 술 한잔 하면서 평소에 하지 못했던, 아니 하기 쉽지 않은 마음 속의 건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더욱 그러하였다.

San Pablo City의 마리아바스라는 곳의 리조트에서 수영을 했다. 시작부터 지프니를 통째로 빌려 온 YMCA 패밀리가 지프니에 가득 차서 이동할 때부터 신났으며 리조트의 아름다움에 나중에 찬번 더 오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더불어 필리핀 사람들의 여가 생활도 조금 엿 볼 수 있어서 의미 있었다. 수영을 하고 휴식 시간에 먹었던 간식(딜라피아, 소시지, 훈제고기, 파코셀러드)은 꿀맛이 따로 없었고 수영 삼매경에 빠지는 것도 나를 리프레쉬 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술자리에서 토퍼(어머니의 GOD SON), 제프리, 버니와 즐겁지만 건지한 대화를 하며 더 큰 교감을 할 수 있었고 민선이와 전희와도 오랜만에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11월을 준비하고 10월의 마무리로써 더 없이 좋은 기회이고 경험이었다. OVERNIGHT으로 인한 숙취와 체력방전으로 다음날 잠을 많이 자야만 했지만.....특별하고 뜻 깊은 경험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좋았으면 좋겠다는.....그런 생각은 나만 드는 건가? 하하하

녹색 소비를 위한 우리의 약속 점검!

1. 전반 없애기(★★★★★): 개인접시를 활용해 음식을 먹는 필리핀에서 우리는 '먹을 만큼만 담아서 남기지 않고 먹자' 라는 약속을 정했습니다. 모두가 입을 모아 잘 달성된 것 같다! 라고 외쳤습니다. 물론 이번 찬 달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연두에 두어야 하구요.
2. 사용하지 않는 콘센트 뽑기 / 사용하지 않는 전구 끄기 (★★★★☆): 전반적으로 모두 잘 지키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생각하고, 실천하고는 있지만 아직 습관화되지 못했구요. 이번 평가를 계기로 다시 찬 번 팀원들끼리 점검하고 더 노력할 예정입니다!
3. '전반 없애기' 약속이 모두들 몸에 어느 정도 익은 것 같아 새로운 약속을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바로 '계획적인 소비'. 물론 각자의 생활 패턴도 조금씩 다르고 목표치도 다르지만 매 달 마다 지출을 계획하여 신중히 소비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팀은 개인 용돈 이외에도 팀 회비를 건어 필요한 일에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공금 역시 매달 일정하게 건어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Albert's Letter

Dear 팀원들! 에게 쓰는 첫 번째 편지~Ye 잘 읽어봐!

10월이 끝나고.....참 많은 일이 있었네. 첫날부터 Aurorae에 가서 많은 걸 배우고 느꼈고 다녀와서 END POVERTY CAMPAIGN 준비하고..... 다들 몸도 마음도 많이 피곤하고 지쳐서 컨디션이 말이 아니었지! 그만큼 10월 한달 열심히 활동했고 시간도 빨리 간 것 같네. ALS Mapping도 하고 Feeding program도 하고 어머니 생신파티 준비도 하고, 수영도 하고, 몬테소리 스쿨 차어리딩 경연대회 저징도 하고.....아! 판던 레이크도 갔지~ 우와. 우리 진짜 많은 걸 했구나!



진짜 열심히 많은 경험을 한 것 같아. 10월도 9월처럼 많은 경험과 함께 뜨겁고 열정적인 한 달 이었던 것 같아. 아마 11월, 12월도 그렇겠지.

팀원들아! 이제 길다고 느꼈던 5개월의 중간이 다가오고 있어. 참 많은 일이 있었고 많은 일이 또 생기겠지만 9월, 10월 2개월이 지난 지금 팀원 모두에게 그 동안 수고했다는 말을 하고 싶었어. 다른 이야기도 많이 있지만 진짜 수고했잖!(건희버전) 앞으로의 활동과 평가 등이 더욱 기대가 되는 이유는 내가 여기 생활을 즐기고 있고 행복하고 좋기 때문도 있지만 같이 고생한 팀원들이 있기 때문일 거야. 팀원들이 없으면 이런 건 불가능 하겠지~ 가끔 내가 서운케 해도 너무 미워하자마~ 나 그래도 보기와 달리 굉장히 마음씨는 비단결이다..... DON't be Shy mySelf.....

하하하.....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할 테니 남은 3개월도 가깝게는 중간평가도 있는 11월! 우리 파이팅 하자! RaonAtti 6th 펠리핀 팀이 짱인 것 같아. 가훈이가 이 말 했을 때 절대 공감 했었어. 10월 한달 간 수고한 리더 민선, 편집장 건희, 다음 팀리더 가훈, 큰형 동수 형~ 모두 힘냅시다~ 아프자들 말자구요! 오캠? 자. 밥먹자구요!

10월 31일 양승건 올림~

Daniel's Reflection

역동적인 10월.

Aurora에서의 1주일, End Poverty Campaign, ALS 전시회, A&E(필리핀의 검정고시), UN Day, ALS 학생 모 집, Mommy Kristy 생일 파티, Pandin & Yambu Lake 방문, Overnight Swim 등. 9월에 이어 필리핀에서의 10월도 하루하루가 다양한 기억들로 풍성하게 채워진 찬 달이었다. 그야말로 역동적인 10월. 더운 날씨뿐만 아니라 잦은 비 때문에 몸과 마음이 피로할 때도 있었지만 싫지 않았다. 싫다기 보다는 오히려 감사했다. 이번 찬 달 동안 새겨진 기억들은, 물론 그 기억들이 모두 달콤한 기억들이 아닐지라도, 나를 더 성장시킬 수 있는, 더 나은 내가 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테니까 말이다.

지난 2개월은 필리핀에 대해 더 많이 알고 배우기 위해 분주했다면 다가오는 11월에는 조금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무언가를 꼭 이루고 가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서두르고 보채다 보면 진짜 봐야 할 것을 놓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이다. 마음은 여유롭게, 하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때의 눈을 가질 수 있는 냉철함은 필요할 듯하다.

이제 두 달. 5개월 중의 절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지금, 라온아띠 6기 필리핀 팀으로서 비행기에 몸을 실으며 다짐했던 나의 첫 마음을 저금쯤 조심스레 다시 꺼내어 상기시킬 필요가 있음을 느낀다. 초심으로 돌아가 나는 왜 여기에 있고, 무엇을 하러 왔는지 돌이켜서 남은 시간을 더욱 알차게 보내고자 한다. 초조해 하지 않고, 조바심 갖지 않고, 주어진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 돌아가는 비행기에는 풍요로운 기억, 마음이 한 가득 채워진 보따리를 안고 갈 수 있을 것 같다.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하며 10월 찬 달을 기쁜 마음으로 마무리하겠다.

Genie's Diary

#1. 자연스러운 것.

그렇게 멀쩡하던 나도 감기로 찬 번 아팠다. 가끔 지치기도 했던 것 같다.

당시엔 참 힘들기도 했을 텐데, 지금은 그 이상으로 어떤 말이 생각나지 않는다.

하긴 내가 좀 그렇다. 뭔가 좋지 않거나 힘든 상황도 금세 잊어버린다. 혹은 가끔 화가 났던 적이 있다면 그것도 시간이 조금 지나면 혼자서 풀리거나 잊어버린다.

아, 그리고 다르다는 것에 대한 깨달음!? 항상 옆두에 두려 하고 있지만 가끔 서로가 지칠 때는 그 다름이 더 민감하게 다가오는 것 같기도 하다. 그런데 또 생각해 보면 다르니까 설 맛나고 재미있다.

다만 10월은 더욱 바쁘고, 가끔은 지쳤고, 그래도 지금은 웃고 있다는 것!

돌아보면 이번 찬 달 우리가 했던 활동들이, 보냈던 시간들이 다 잊지 못할 경험이자 매번 나를 refresh하게 한 기억이었기 때문이다. 오로라에서 매번 차를 타고 나나이들을 만나러 가던 길의 풍경이, 매일 아침 일어나 웃으며 함께 굿모닝! 나누는 인사가, 잊지 못할 스위밍 오버나잇의 잔디밭에서 함께 누워 별을 보던 순간이.

행복하지만 순탄치만은 않은 순간순간들 속에서 나는 나를 더 알아가고 사람들에게 대한 관심과 궁금증을 품어가고 있다.

그리고 워든 열심히, 함께 했던 팀원들에게도 참고 많다. 앞으로도 우리 잘 살자!

#2. 호기심

호기심. 이번 달 내가 느낀 '변화' 중 하나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첫 찬 달은 정신없이 혹은 마냥 즐겁게 보냈다면 지금은 좀 더 차분히 나를 바라보고 고민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 그 중 하나는 경험이 그 자체로 아름답게 액자에 끼워 넣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것으로 만들고 더 궁금해할 수 있게 되는 상태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이다.

바공 포육 초등학교에서 feeding을 할 때였다. 그 날은 특별히 정부 관련 기관의 지원을 받아서 필리핀에서 아이들에게 인기 있는 패스트푸드인 '줄리비'의 음식을 먹는 날이었다. 일주일마다 만나는 아이들은 대부분 평소에 아침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학교에 온다. 더군다나 집이 먼 아이들은 하루에 받는 아주 적은 양의 용돈을 교통비에 써야 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이 날은 아이들이 방학을 하고 나서 모이는 것이라 더 즐겁게 뛰어 놀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맞이했다. 햄버거와 스파게티를 받은 아이들은 좋아 보였지만 생각보다 무척 행복해 보이진 않았다. 정말 해맑고 평소에 장난기 많은 누엘이는 스파게티를 다 먹고 나서 그 상자에 햄버거를 넣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고 왜 먹지 않느냐, 배부르냐고 물었다. 그랬더니 누엘이는 '우리 누나 가져다 주려구요.'하고 대답했다. 그 순간 마음이 뭉클했던 것 같다. 평소에 아침도 잘 먹지 못하다가 모처럼 그래도 평소보단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게 되었는데.. 어린데도 먼저 가족을, 소중한 사람을 챙기는 예쁜 마음을 보고. 그 전까진 아이들과 마냥 웃으며 노는 것이 좋았던 것 같다. 그렇지만 이제는 우리가 서로 만나는 시간 이외에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더 알고 싶어졌다. 어떤 환경에서 자라고 있고 가족은 어떻게 되는지 하루의 일상은 주로 어떻게 되는지.. 몇몇의 아이들은 수줍어했지만 그래도 대부분 친절하게 대답해 주었다. 큰 도움을 준다는 생각보다 많은 관심을 주고 싶고 즐거움은 함께 즐기고 싶다!

어떤 새로운 활동을 해도 그게 '좋았었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질문을 하고 또 질문을 하는 습관을 만들어 가고 있다. 오늘도 내일도 만나는 사람들을 향해 똑똑똑 두드리자.

Honey'S Letter



한국의 아빠, 엄마, 할머니께 보내는 편지☺

아빠, 엄마, 할머니 잘 지내고 계신가요? 이곳에 오기 전, 최소한 한 달에 한번은 안부를 전하기로 약속했었죠! 그래서 9월에는 직접 손 편지를 보냈지만, 이번 달에는 바쁘게 지내다 보니 이제서야 편지를 씁니다. 이미 지난 번에 보낸 편지와 9월의 우리 팀 보고서를 통해 아셨겠지만, 저 잘 지내요. 진짜 잘~지내요. 어찌면 서울에서 혼자 지내던 것 보다 더 잘 지내요. 아무래도 이곳에서 저는 혼자가 아니고, 또 다른 가족과 지내고 있으니깐요. 밥도 아침, 점심, 저녁 세끼 꼬박꼬박 잘 먹고 있어요. 모든 게 다 좋다고만 하고, 무조건 다 잘 지낸다고만 이야기하면 믿기 힘들시겠죠? 솔직히 10월에는 몸살로 하루쯤은 앓았고요. 목이 아파서 한 삼일 정도 고생했어요. 그렇지만 바로 약 잘 챙겨먹고 푹 쉬어서 곧 나아졌어요. 아시잖아요. 저 혼자 지내는 생활에 익숙해지다 보니, 조금만 아파도 병원에 쏠르륵 찾아갈 정도로 제 몸 챙기는 애라는 거. 그러니까 제 건강은 걱정 마세요.

후보였던 제가 갑작스럽게 파견이 결정되어 안산으로 내려갔을 때, 그리고 나서 한 4일만엔가 엄마랑 통화했을 때 했던 말 기억나세요? 여태까지 살아왔던 그 어느 일주일보다 많은 생각을 하고 지내고 있다고 한 말이요. 필리핀에서의 생활 역시 그래요. 하루하루가 새로운 생각할 거리들의 연속이예요. 심지어 저는 아직 진정한 'Volunteer'란 무엇인지조차도 잘 모르겠어요. 계속 고민 중인데 한국에 돌아갈 때까지도 계속 모를 것 같기도 하네요. 23년을 살면서 제 나름에는 세상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생각도 많이 하고 있다고 여겼었는데, 참 제 생각의 그릇이 작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 세상에는 제가 고민하고 행동해야 할 것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아, 전공 공부부터 제대로 해야 하는 티 말이죠. 또 학교 공부 말고 다른 거 하겠다고 할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세상에 대해 잘 생각하려면 우선은 제 공부부터 제대로 해두어야 한다는 것도 역시 깨달았거든요. 가능할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적어는 볼게요. 저 다음학기에 장.....학.....금..... 타보려고요 허허. 제가 또 찬다면 하잖아요!! 훗! 아빠 딸, 엄마 딸, 할머니 손녀, 가훈이예요!! ☺ 신나서 적고 보니까 좀 막막하네요? 바로 수정할게요. 장학금 탈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공개적인 지면에 적는 것이니까 더 제가 한 말에 책임감이 느껴지고 좋네요.

아, 이제 절반 정도 왔습니다. 그 동안 지내왔던 날들보다, 앞으로의 3달을 더 열심히 살다가 돌아갈게요. 어제 하루를 열심히 보낸 것처럼, 오늘 하루를 열심히 보내고, 또 내일 하루를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는 날, 지금보다 아마 한 뼘쯤은 자라있을 제 모습 기대하셔도 좋아요! 그럼 그 날 까지 추운 날씨에 몸 건강하게, 마음도 평안하게, 안녕히 계세요~

2011년 10월31일 월요일

필리핀에서 딸 가훈 올림.

Sun's Reflection

이번 달은 정말 바쁘고 힘들었던 달이었습니다. 오로라를 다녀온 전후로 다음 플랜을, 또 그 다음 플랜을 위해 우리는 열심히 달렸습니다. 우리가 경험했던 일들, 우리의 활동들 모두 죽었다 깨어나도 다시 겪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게는 너무나 재미있고 아쉬움마저 듭니다.

시간이 참 빨리 흘러갑니다. 하지만 겪을 건 다 겪고 지나가고 있는 듯 합니다. 처음 한 달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그저 즐겁거나 상대방의 어떠한 행동에 '뭐지..?'하고 넘겼던 일들도 지금은 무덤덤하게 넘어가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제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조금씩 좀 더 속에 감추어둔 모습들을 보기 시작한 듯 합니다. 나에 대해서든 다른 누군가에 대해서든 마음 편히 풀어내지 못하고 생각만 쌓이다 보니 잠시 마음의 병을 앓았던 것 같습니다.

다음 달은 더 바빠질 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낫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좋은 하루가 될 거라 믿습니다.

이 글을 보시고 많은 분들의 걱정을 들지 모르겠어요. 특히, 다른 나라 팀들의 작성한 글까지 하나하나 꼼꼼히 읽어보시는 애독자, 부모님으로부터 행여 무슨 일이 있나 놀라 전화가 올까 무섭습니다.

아무 일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저 감성적이기 쉬운 밤에 마음 가는 대로 쓰는 글일 뿐이니까요. 그리고 저는 걱정하시는 것 이상으로 아주 강합니다. (하하!!)

다음 호를 기대해주세요!

Salamat po^^